

“특권은 내려놓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김병태 남구의회 의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송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벌써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전 의원들이 합심하여 공부하는 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를 통해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훈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 감동, 열린 의정」의 실현으로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민생과 관련된 각종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로인은 없었는지,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새 정부의 지방정책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엄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시장과 감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더 신장시켜야 하며,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농림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후 저는, 의장연설 차량을

과감히 없애고, 저의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하며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자진 반납하는 등 작은 특권이라도 모두 내려놓고, 낮은

자세와 반듯한 소신으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꿈과 희망이 있는 남구, 미래지향적인 남구를 건설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예언자인 단테는 “실속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충실히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달 23일 대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문화·관광, 건설·건축, 예산·회계, 복지 등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남구의회 의정 자문위원회」를 의욕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의정자문위원회들은 앞으로 정책자문과 제언을 통해 의회 발전을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3선의 이종철 구청장님의 임기도 이제 1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혼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남구는 광복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지향적 구성을 당부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 밭위 뛰는 현장행정 수행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한곳에서라도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무더위와 장마가 예상됩니다. 무더위 쉼터 등 혹서기 주민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어렵고 힘든 분들의 여름나기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일각 네 명이 사망한 갑작도 교통사고 참변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의 각각

지대는 없는지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점검하여, 꼭우나 태풍 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더 한 층 박차를 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책지원 제안

박미순 의원
(용호1)

남구는 2017년 4월 기준 13,043명 중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는 약 14%인 1,815명이며 장애인 연금 대상자 중 39%인 7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정책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1회 성 행사에 그치는 사업추진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 지원, 재장애인을 위한 목욕서비스 확대, 반찬 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센터를 활

용한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주제를 제안합니다.

둘째, 1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043명 중 장애인 연

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도 1,000명의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합니다.

남구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관 급식소 이용은 무료로 할 경우

잦아오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비 지원이나, 복지

관에 부식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질 좋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이용하

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BF 인증제」 도입입니다.

BF인증제란 장애물을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입니다. 문턱이

이 없는 출입문,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의 복도와 접근로, 자동문

등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

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

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안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함께 망국으로 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남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

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남구의회는 지역구 13명, 정당

비례대표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정당의 기

반이 중요합니다. 원 구성 시 현재

국회의 관례대로 제1당이 의장을,

제2당은 부의장을 맡고 각 상임위원회

는 1당과 2당이 의석수대로 배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는 겸손하고

정직하여야 하며 바른 인품을 갖춰

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온 큰 바위 얼

굴의 주인공 「아너스」 애말로 이

시대에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인

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보와 보수는 한 사회

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인들은 전부 아니면 전부로 상대방

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의정소식

제25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박미순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책지원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유장근 의원은 「위기의 이기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회의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주민복지지도위원회(위원장 윤정희)는 주민복지지도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예산과 법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19일에 개의된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윤정희)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장)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비난 여론이 제기되어 있어, 구급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동반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4.11.03.)된 우리 구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속박비)에 대한 상위 법령(공무원 예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삼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원 국내 출장시 속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4.11.03.)된 우리 구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속박비)에 대한 상위 법령(공무원 예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삼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원 국내 출장시 속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가결)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 정리

를 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가결)

-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원안가결)

-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가결)

-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원안가결)

- 예산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병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가